

觀光釜山

Busan Tourism News

Vol.05 3
2011. March

영도대교

부산사람들의 눈물과 땀을 기억하고 있는 영도다리. 부산시 기념물 제56호.
해체공사가 한창이다. 차폭만 넓혀질 뿐, 원형대로 복원한다. 2년 뒤인 2013년 완공한다.



 釜山廣域市觀光協會
BUSAN TOURISM ASSOCIATION
<http://www.bta.or.kr>

동래나 길
Dongnae na Gil

KOREAN AMETHYST MANUFACTURING

紫水晶 加工 販賣場



Busan

龍頭山公園
Yongdusan Park

達友紫水晶

DAL WOO AMETHYST CO.

釜山市 中區 光復洞2街 1-2番地
#2-1, Kwangbok-dong, Jung-gu,
Busan Korea
Tel : (051)243-8085~6 Fax : (051)243-8157

Kyungju

天馬塚
Chunmachong

達友商事

DAL WOO CO.

慶州市 龍谷洞 194-10
#194-10, Gungnam-dong, Kyongju City
Tel : (053)241-0683~4
Fax : (053)241-5472

Jeju

濟州市 往地
Jeon Dong
New City

達友紫水晶

DAL WOO AMETHYST CO.

濟州市 連洞 1371-5(城南B/D 2層)
#1371-5, Suknam B/D 2F Yeon-dong,
Jeju Korea
Tel : (064)749-0684~5
Fax : (064)749-0685



達友紫水晶

DAL WOO AMETHYST CO.

釜山市 中區 光復洞2街 1-2番地
#2-1, Kwangbok-dong, Jung-gu,
Busan Korea
Tel : (051)243-8085~6 Fax : (051)243-8157

H · O · T · E · L · A · Q · U · A · P · A · L · A · C · E

www.aquapalace.co.kr

낭만이 깃든 초록빛 내음 가득한 그곳에
「호텔아쿠아펠리스」가 있습니다



21F	전망라운지
19~20F	스카이라운지
10~18F	객실
4~9F	워터파크
3F	중연회장
2F	대연회장, 소연회장, 입식당
1F	로비라운지, 필레스테리움, 레스토랑

국내최초 사계절 비치워터파크 호텔 「호텔아쿠아펠리스」

「호텔아쿠아펠리스」는 국내최초 사계절 비치워터파크 호텔로 38℃ 천연 암반
심해온천수가 사용된 워터 테마파크입니다



HOTEL AQUA PALACE
호텔아쿠아펠리스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2동 192-5
Tel. 051-756-0202 Fax 051-790-2366

발행·편집인 이근후
편집위원 손해석, 이평규, 김종규, 이해원, 김봉오
편집국장 박성희
취재기자 이효영 (김대현, 이민지 객원기자)
발행일 2011년 3월 26일
등록일 2010년 9월 27일
등록번호 부산동라 00009

발행처 부산광역시 관광협회 _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 569-2
TEL. (051)463-3111, 463-3080 FAX. (051)463-0004
편집실 부산시 사하구 허단동 870-95 나산리초 202
TEL. (051)206-7500 FAX. (051)205-7767
E-mail. btjbusan@hanamil.net
편집·디자인 보문디자인 (051)469-3563



표지_영도대교

- 06 2011년도 외국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 12 부산찾는 외국인관광객 2백만명 돌파
- 15 서면 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 개관
- 17 감천문화마을 '대표 영화배경지' 선정
- 18 조선통신사 역사관 개관
- 21 부산에 관광형 바다목장 조성
- 22 4월 22~24일까지 공간리어방축제 열린다
- 23 수영일대 해양레저타운으로 조성
- 24 부산국제영화제 '제2 도약의 시대'
- 24 부산전차, 관광상품으로 시민에 공개
- 27 에어부산 부산~타이페이 취항으로 상호교류 급증
- 28 부산해수욕장 사계절활성화 추진
- 29 옛 하야리아명칭 '부산시민공원' 최종 확정
- 34 부산 시티투어버스 운행코스
- 36 호텔가 소식
- 40 칼럼·비약이 기대되는 부산의 마린레저 / 나가사키시 부산사무소 소장 사사키 야스오

2011년도 외국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관광협회)에서는 2011년도 외국인관광객 유치증대 방안에 일환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한 여행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센티브 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 기간 : 2011. 1. 1 ~ 2011. 12. 31
- 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여행업체
- 지원조건
 - _ 10인 이상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시내 관광숙박업체(관광호텔, 콘도 등)에서 2박 이상 숙박시킨 일반여행업체로서, 분기별 해당 유치실적이 300명 이상(단, 부산에 본점을 둔 일반여행업체의 경우 분기별 50명 이상)
 - _ 관광숙박업이 아닌 일반 숙박업체일 경우 관광호텔급 이상의 수준을 갖춘 업체로서 부산광역시관광협회에서 인증한 숙박업체
- 지원금액 : 1인 10천원 (수학여행객은 1인 5천원)
- 지원방법 : 업체별 연간 10백만원 한도, 분기별 최대 300만원
 - ▶ 연간배정액 : 부산지역 업체 40백만원, 타지역 업체 60백만원
- 신청기간 : 분기별 익월 10일까지 접수
- 지급시기 : 매분기별 (단, 4/4분기는 12월 20일까지 접수)
- 소요예산 : 100만원 (단, 소요예산 범위내에서 예산소진시까지 지급)

중화권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 기간 : 2011. 1. 1 ~ 2011. 12. 31
- 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여행업체
- 지원조건
 - _ 10인 이상 중화권(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에 한함)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시내관광숙박업체(관광호텔, 콘도 등)에서 1박 이상 숙박시킨 일반여행업체로서, 분기별 해당 유치실적이 100명 이상 (단, 부산에 본점을 둔 일반여행업체의 경우 분기별 50명 이상)
 - _ 관광숙박업이 아닌 일반 숙박업체일 경우 관광호텔급 이상의 수준을 갖춘 업체로서 부산광역시관광협회에서 인증한 숙박업체
- 지원금액 : 1인 10천원 (수학여행객은 1인 5천원)
- 신청기간 : 분기별 익월 10일까지 접수
- 지급시기 : 매분기별 (단, 4/4분기는 12월 20일까지 접수)
- 소요예산 : 100만원 (단, 소요예산 범위내에서 예산소진시까지 지급)

문화체험장 등 이용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 기간 : 2011. 1. 1 ~ 2011. 12. 31
- 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여행업체
- 지원조건
 - _ 외국인관광객을 시내 관광숙박업체(관광호텔, 콘도 등)에서 1박 이상 숙박시키고 부산시인증 문화체험장, 부산관광쇼핑센터(웅두산공원 내)를 관광코스 포함시킨 일반여행업체
 - _ 관광숙박업이 아닌 일반숙박업체일 경우 관광호텔급 이상의 수준을 갖춘 업체로서 부산광역시관광협회에서 인증한 숙박업체
- 지원금액 : 1인 5천원
- ★부산시 인증 문화체험장 : 기장도예관, 수월요, 장안요, 오마일랜드, 금강사, 범어사, 문화요리학원, 코스요리학원, 민덕뜰예장, 동아요리학원, 산성도예관, 강서예술촌, 아트백토리안다대포, 점프, 공수마을
- ★체험장은 체험인원, 부산관광쇼핑센터는 쇼핑세너에서 인정하는 인원
- 지급시기 : 매월별 (단, 12월분은 12월 20일까지 접수)
- 소요예산 : 100만원 (단, 소요예산 범위내에서 예산소진시까지 지급)

지역업체 공동상품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 기간 : 2011. 1. 1 ~ 2011. 12. 31
- 대상 : 부산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협의체(컨소시엄)
- 지원조건

(붙임1)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신청서(공통)

일반사업

업체명	대표자
주소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거래은행	계좌번호
연락처 전화	FAX

인센티브 구분 : 단체관광객유치, 비정기요인 항공(크루즈)유치, 기타
업체 공동상품 개발
* 해당 인센티브에 체크

외국인단체관광객 유치현황

구분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실적(단위명)
지역	중국
지역	대만
지역	홍콩
지역	마카오
지역	싱가포르

본서에서 1. 외국인 단체관광객 숙박인센티브
2. 외국인 단체관광객 숙박인센티브
3. 사업과제서(비리해당)에 해당 인센티브에 한함
4. 여행객의사, 숙박비, 항공료, 보험료 등 증명서류
5. 여행일정(항공료, 호텔, 부산시내 관광숙박업체(관광호텔급) 인증
* 신청서류 첨부 : 단체관광객유치인센티브 신청서, 인센티브 신청서
상기내용은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1.

신청인 : 업체명
대표자 :

부산광역시관광협회장 귀하

(붙임2)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신청서(공통)

숙박업신청
 숙박업
 일반사업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업체명	대표자
주소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연락처	계좌번호

《숙박내용》 * 1인 1박 기준

숙박기간(단위명)	숙박인원(단위명)	비고

신청한 금액 10만 이상 외국인단체관광객이 (1)박 이상 숙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1.

신청인 : 주소 :

대표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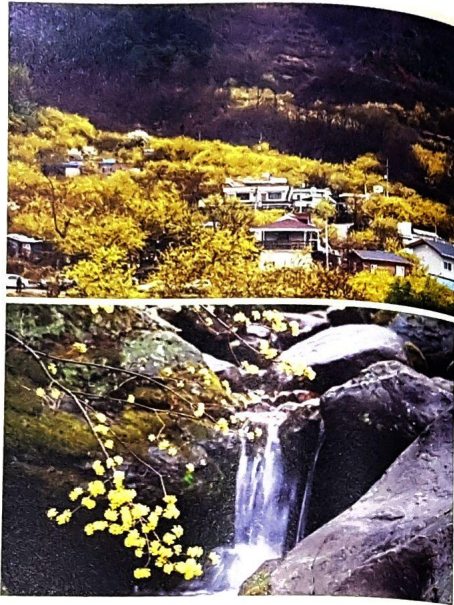
부산광역시관광협회장 귀하

매화향, 그리고 산수유 꽃향에 취하다!

평양 청매실농원

추운겨울이 채 물러가기 전에 봄향기를 전해주는 매화, 3월이 되면 매화마을(전남 평양 다압면 섬진리)은 한쪽의 동양화가 된다. 백매화, 청매화 그리고 홍매화가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청매실농원은 매화나무 집단 재배를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이다. 40여년 전 청매실농원 주인인 홍쌍리 여사가 밤나무를 베어내고 매화나무를 심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됐다. 평양의 매화와 그 열매인 매실을 널리 알린 홍쌍리 여사는 우리나라 최초로 식품 명인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매화가 소담스럽게 핀 입구를 지나 언덕을 오르면 커다란 마당이 나온다. 마당에는 3000개에 달하는 장독이 끝없이 이어진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장독 풍경은 매화만큼 매력적이다. 풍부한 봄볕 아래 펼쳐진 장독 안에는 매실 된장과 매실 고추장이 익어간다. 마당을 뒤로하고 산책길을 따라 오르면 전망대에 이른다. 이곳에서면 청매실농원은 물론 매화마을과 섬진강이 한눈에 들어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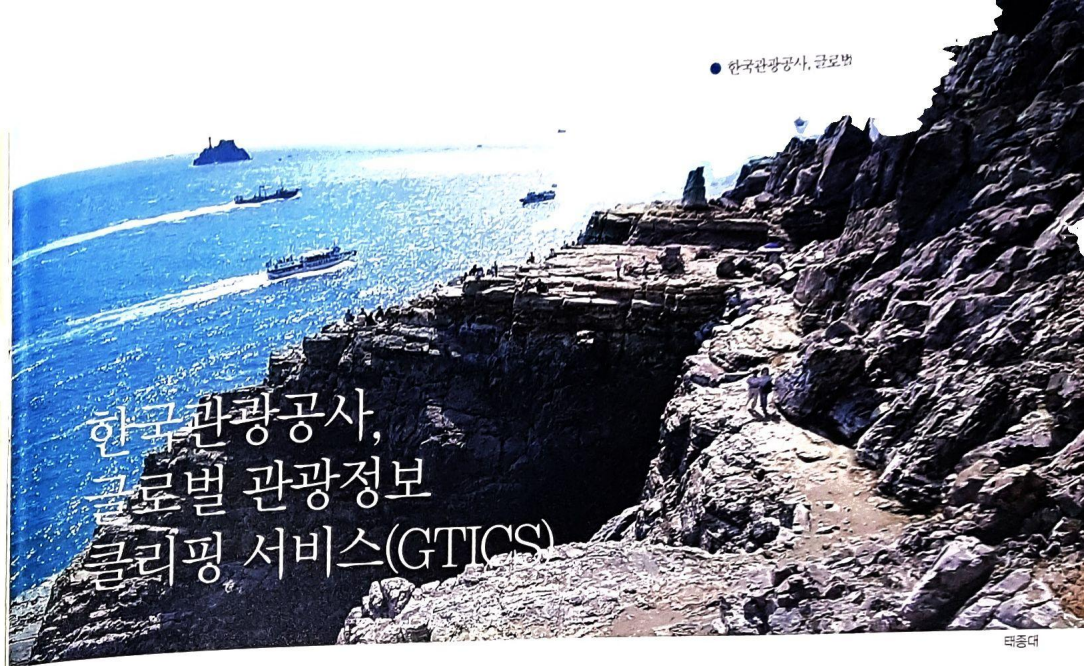
구례 산수유마을

산수유꽃잎은 4~5mm 작은 편이다. 그러나 수천 그루의 산수유 나무가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리면 그 어느 꽃보다도 화려한 자태를 뽐낸다. 마치 노란 눈이 내려앉은 것처럼 화사하다.

산수유꽃은 매화보다 더디게 핀다. 매화가 절정을 맞는 3월 중순이 지나면 산수유가 그 바통을 이어받는다. 산수유나무는 일교차가 크고 배수가 잘되는 해발 300m 정도의 분지나 산비탈에서 잘 자란다.

지리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구례군 산동면은 산수유나무로 유명하다. 국내 최대 산수유단지로 꼽히는데, 전국 생산량의 절반이 넘는 산수유를 생산한다. 그중에서도 산수유 군락이 가장 많이 들어선 곳은 상위마을이다. 우리가 흔히 '산수유마을'이라고 부른다. 산수유가 피기 시작하면 집 주변과 골목길은 물론이고 산과 들까지, 눈을 두는 곳은 모두 노란빛이다.

이민지 객원기자



태종대

한국관광공사는 고객과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세계 각국의 관광뉴스를 이메일을 통해 매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관광정보 클리핑 서비스(GTICS)"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관광공사의 27개 해외지사 주재원들이 현지에서 수집한 세계 각국의 관광 뉴스, 관광업계 동향을 모니터링 및 자료를 정리해 제공하는 최신 관광정보 서비스이다. 국내 관광업계나 유관단체들은 국제관광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시의 적절한 대응해야 함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시간과 비용이 부족해 자료수집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가운데 관광공사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는데 일조하고자 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업계의 국제 관광환경 모니터링을 돕고 나아가 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관광정보 클리핑 서비스(GTICS)는 헤드라인과 관련 핵심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되며, 더 자세한 소식을 원할 경우 URL 링크를 통해 원문정보에 접근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현재 한국관광공사홈페이지 www.visitkorea.or.kr → 관광비즈니스센터 → T2지식마당 → 지식DB → 관광시장정보 → 글로벌 관광정보 클리핑 서비스(GTICS)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Greater Busan CVB

부산관광컨벤션뷰로

"당신의 미소가 필요합니다."

부산 시민들의 참여와 봉사로 우리 부산이 세계적인 컨벤션 도시 순위에서 27위를 차지했습니다.

홍콩, 상하이, 시카고보다 더 많은 국제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될 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사람들이 부산을 더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컨벤션을 통해 부산에 회의 차 방문하는 외국 VIP를 유치하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미이스 산업을 통해 국내외 모든 비즈니스맨들이 부산으로 몰려오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성공의 열쇠는 바로 '미소'입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미소로 부산을 홍콩보다, 상하이보다 더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주세요.

www.busanclub.org
Tel. 051)740-3600
Fax 051)740-3640



부산 찾는 외국인 관광객, 2백만명 돌파 중국, 전년대비 44% 급증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2년 연속 2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22만 2천여명, 2009년 202만 6천여명에 이어 2년 연속 200만명 이상이 부산을 찾았다. 부산이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 시대에 완전히 진입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일본인이 57만 1천 436명(25.7%)으로 여전히 가장 많고 중국인이 46만 1천 957명(20.8%)으로 뒤를 이었다. 중국인 관광객은 전년 32만 730명에 비해 41%나 늘었다. 그야말로 폭발적인 증가세다.

이밖에 미국인 13만 186명(5.9%), 러시아 4만 9천 404명(2.2%), 독

일 4만 3천 930명(2.0%), 영국 3만 9천 828명(1.8%), 홍콩 3만 6천 337명(1.7%), 캐나다 3만 4천 335명(1.5%), 대만 3만 2천 171명(1.4%) 등의 순이다.

시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목표를 250만명으로 잡았다. 이를 위해 관광객들에게 각종 관광·쇼핑 할인혜택을 주고, 교통카드 기능까지 갖춘 '부산관광카드'를 도입하고 다음달부터는 부산서울간 외국인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이밖에 다양한 관광프로그램과 각종 편의·혜택을 제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탄력을 붙일 계획이다.

김대현 객원기자

2박 3일 체류형 부산관광상품 출시

서울과 수도권을 겨냥한 2박3일 체류형 부산관광상품이 나왔다. 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외국인 전용 무료 셔틀버스도 운영된다.

부산시와 부산관광진흥위원회는 부산에서 주말(금-일요일) 2박 3일을 보내는 관광상품을 개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상품은 금요일 저녁 KTX를 타고 부산에 도착, ▷광안리나 해운대에서 회와 바다를 즐기고(1일) ▷중구 남포동 BIFF(부산국제영화제) 광장, 국제시장, 태종대를 돌아보고(2일) ▷가기대로를 달리 경남 거제를 관광하고 KTX로 23분 만에 닿는 경북 경주를 둘러본 뒤 서울로 귀향

(3일)하는 코스다.

시는 연말까지 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공동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서울-부산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월요일을 뺀 주 6일 하루 1회 왕복운행한다. 오전 8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에 출발해 오후 2시 부산 서면 롯데호텔과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 도착하고, 오후 4시 파라다이스호텔을 출발해 밤 10시30분 서울에 도착한다. 영어 인본어 중국어 무료 통역서비스가 제공되며, 인터넷(www.english.visitkoreayear.com)이나 전화(1577-2507)로 예약하면 된다.

김대현 객원기자

지난해 부산을 찾은 외국인 환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진료 분야는 미용성형에서 건강검진, 암 수술 등 질병 치료로 바뀌는 추세다. 부산시와 지역 병·의원이 의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외국인 환자를 적극 유치한 덕택으로 풀이된다. 부산시는 지난해 부산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5921명으로 2009년 4676명보다 26.6%(1245명) 늘어났다고 최근 밝혔다. 국가별로는 러시아가 1709명(28.9%)으로 가장 많고 이어 ▷중국 867명(14.7%) ▷일본 684명(11.5%) ▷미국 611명(10.3%) ▷기타 2050명(34.6%) 순으로 집계됐다. 부산에는 현재 188개의 병·의원이 시에 등록을 마치고 외국인환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부산시는 보건산업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해 외국인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가 373만3000원인 점을 들어 지난해 외국인 환자 유치로 220억 원 상당의 진료비 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부산, 의료관광 외국인 적극 유치 나섰다

188개 병·의원, 시 등록, 지난해 220억 진료비 수입



의료관광 초기의 쌍꺼풀 수술 등 미용성형에서 벗어나 최근 고급 건강검진, 암 수술 등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부산을 찾은 외국인 환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성형, 건강검진, 암수술 등 질병치료 목적

의료관광의 절도 높아지고 있다. 의료관광 초기의 쌍꺼풀 수술 등 미용성형에서 벗어나 최근 고급 건강검진, 암 수술 등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부산을 찾는 외국인 환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근 부산시의사회장은 "부산은 서울 못지않은 수준 높은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갖추고도 진료비가 서울보다 저렴해 암 수술을 받으러 부산을 찾는 외국인 환자가 서서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관광을 산업으로

의료관광을 산업으로 끌어올리려면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부산시 박호국 복지건강국장은 "이제 단순한 의료관광을 넘어 의료산업으로 끌어올려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11월 부산국제 의료관광컨벤션을 개최하고 러시아 대중스타를 초청해 부산의료관광 체험 마케팅을 펼치기로 했다.

김대현 객원기자

서면의료관광종합안내센터 전경



서면 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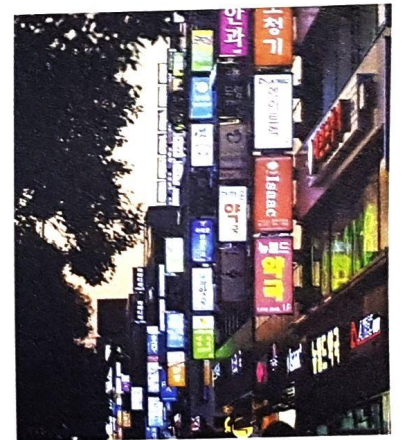
부산롯데호텔 주변 의료기관 밀집지역을 의료관광 특화거리로 조성

부산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의 '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가 지난달 9일 문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 이 센터는 부산을 찾는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료관광 홍보뿐만 아니라 상담·체험정보 등 종합정보를 제공한다.

이 센터는 1억 2천 700만원을 들여 건물과 안내 사인탑을 갖췄으며, 4명의 안내원이 상시 근무한다. 부산시는 서면 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 개소와 함께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 조성사업'에 착수, 올해 말 완공할 계획이다.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지역 우수의료기술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 국비 15억원 포함 총 30억원을 들여 오는 12월까지 부산롯데호텔 주변 의료기관 밀집 지역을 의료관광 특화거리로 만든다.

김대현 객원기자



부산 산복도로 르네상스시대 열린다

역사·문화·관광의 문화재생사업으로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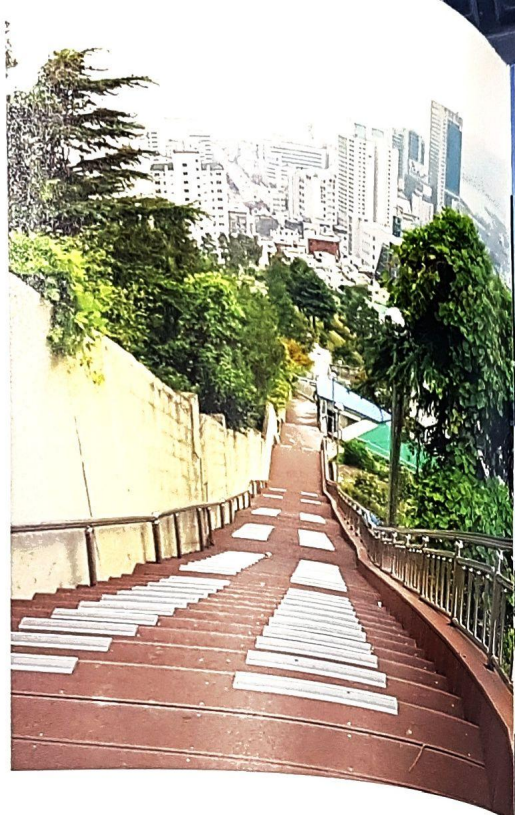


부산시의 부산형 창조적 도시재생모델인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의 밑그림이 나왔다.

사업의 용역을 맡은 부산발전연구원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년에 걸쳐 1천300억원 규모로 추진될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의 최종 보고서를 최근 부산시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사업 대상지역은 10.5km로 ▲주례-개금, 가야, 범천-범일 등 업강산 권역 3개 구역 ▲좌천-수정, 초량-영주, 보수 등 구봉산 권역 3개 구역 ▲대신, 아미-감천, 중무 등 구덕 천마산 권역 3개 구역 등 총 3개 권역 9개 구역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사업은 ▲마을 그린 버스 운영, 친환경 보행 가로 조성, 복개하천 복원 등 생태·교통·경관을 개선하는 공간재생사업 ▲주거개량, 독거노인 생활공간 조성, 공공화장실 개보수, 도시농업사업, 공동체 수익사업 등 주거·경제·교육·복지를 지원하는 생활재생사업 ▲산복도로 생활자료관, 견고 싶은 산복도로 조성사업, 마을카페사업, 공간문화사업 등 역사·문화·관광의 문화재생사업으로 진행된다.



특히 사업은 부산시 총괄하에 전문가, 행정, 관련단체,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추진위원회와 사업대상지 주민 등을 중심으로 결성된 주민협의체를 주제로, 지역여건 및 사업유형에 따라 공공주도, 민간주도, 민관합치, 시범공모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전개된다.

부산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2011년 1차 사업으로 초량-영주구역과 아미-감천 구역 일부를 대상으로 사업비 118억원 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부산의 대표적인 지역재생사업인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의 최종 구상안이 제시돼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선다"며 "관의 일방적인 주도가 아닌, 시민 등 지역사회와 함께 추진하는 지역재생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은 초량-영주, 아미-감천 등 산복도로 일원에 대한 역사·문화·자연경관 등 종합적인 재생으로 해당 지역을 명품지역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산시는 해당사업의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한 용역을 2010년 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부산발전연구원 주관으로 추진해 왔다.

이미지 격월기자

감천문화마을(태극도 마을) '대표 영화배경지' 선정

관광객 방문으로 경제적 효과 창출

'부산의 마추픽추'로 불리는 부산사하구 감천문화마을(태극도 마을)이 '영화의 집'으로 선정됐다. '영화의 집'은 영화도시 부산의 브랜드 자산을 가치화하기 위해 마련된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사업으로, 주요 영화 촬영지 중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곳을 선정해 인증서를 부착, 영화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높이는 것은 물론 관광객 방문 등으로 경제적 효과 창출을 노리고 있다.

감천문화마을은 한국 일본 태극 등 아시아 3개국에 참여한 유니버시티 영화 '카멜리아'를 비롯해 '슈퍼스타 감사용', 일본영화 '히어로' 등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의 배경으로 등장한 바 있다. 사하구는 이번에 영화의 집으로 선정되면서 사업비 1000만 원을 지원받아 감천문화마을을 입구에 큰고니와 나무를 형상화한 '영화의 집'

인증조형간판을 세우고 전망대인 하늘마루 종합안내관을 비롯해 지역 곳곳에도 소형 인증간판을 부착했다. 또한 감천문화마을 명함과 스티커, 포장용 봉투, 종이가방, 종이컵, 우표, 엽서, 스탬프, 종이책자 등 다양한 물품을 지원받아 이들 제품에 '영화의 집'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사하구는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등장했던 골목과 장소에 영화 즐거리와 촬영장면, 주연배우 등의 이미지와 글을 담은 간판도 부착할 계획이다. 사하구 관계자는 "독특하고 부산다운 이미지를 담고 있는 감천문화마을이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에 등장하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잦아졌고 이번 '영화의 집' 인증으로 마을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미지 격월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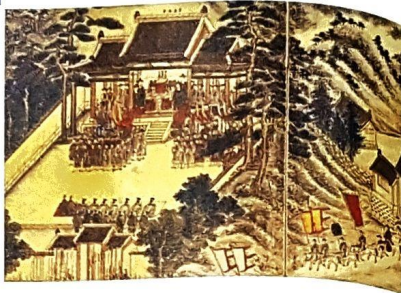


17 2011. March
觀光釜山 Busan Tourism News



행렬이나 음식·행사 재현 등에 집중돼 있던 조선통신사 관련 콘텐츠들이 '스토리텔링' '예술작품' 등 소프트웨어로 진화하고 있는 셈이다. 부산문화재단측은 "조선통신사 캐릭터를 활용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등 디지털 콘텐츠개발도 시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선통신사 역사관 개관 역사관·기념관 건립, 테마산책로 등 조성



조선통신사 역사관 건립이 이달 말 개관예정이다. 동구 범일동 자성대공원 안에 건립되는 역사관은 정사·부사·종사관·군관 등 조선통신사의 모습을 홀로그램으로 보여주고, 조선통신사들의 행로와 일본 내 활동 등을 보여주는 모형과 각종 복제 유물, 어린이들을 위한 3D 조선통신사 영상물 등이 전시된다.

35억원을 들여 2009년 말 착공해 내부 공사 중인 '조선통신사 역사관'은 지상 2층에 연면적 578㎡ 규모다. 조선통신사의 활동과 역사 등을 알려주는 곳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의 방문코스로 활용될 전망이다. '조선통신사'는 설치작품으로 한번 더 진화의 발걸음을 내딛는다. 부산문화재단은 다음달 10일까지 '2011조선통신사 축제' 조선통신사 역사테마관 설치작품 공모 중이다. 행렬도·사립·부산과 조선통신사·음식·이야기·전별연·영가대 등을 소재로 한 설치작품이 대상이다. 부산문화재단측은 "부산지역 대표적인 역사문화 콘텐츠인 조선통신사를 예술적·교육적 테마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모에서 선정된 작품들은 향후 조선통신사의 예술·문화적이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행렬이나 음식·행사 재현 등에 집중돼 있던 조선통신사 관련 콘텐츠들이 '스토리텔링' '예술작품' 등 소프트웨어로 진화하고 있는 셈이다. 부산문화재단측은 "조선통신사 캐릭터를 활용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등 디지털 콘텐츠개발도 시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런 변화의 움직임은 오는 5월 5일부터 8일까지 부산 중구 용두산공원·광복로 등지에서 열리는 '2011조선통신사 축제'로 이어지고 있다. 조선통신사 퍼레이드·전별연·해신제 등의 행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이 축제는 올해엔 용두산공원 조선통신사 광장을 신설, 보다 다채롭게 꾸며진다.

이 광장에선·공모에 당선된 설치작품 등을 전시하는 '조선통신사 역사체험존'·조선통신사 도전 골든벨·한·일 예술단(6팀)이 참가하는 한일 춤마당·한·일 가요대회·조선통신사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기부·한·일 예술단 공연 등의 시민 체험형 프로그램들이 펼쳐질 계획이다.

조선통신사는 올해도 일본 쓰시마의 '아리랑 마쓰리(8월 6-7일)를 비롯, 시모노세키 '바칸 마쓰리(8월 20-21일), 후쿠오카시 아시아태평양 페스티벌(10월 8-10일)에 참가해 조선통신사 행렬을 재현한다. 특히 조선통신사 축제 개최 등 조선통신사 사업 10년, 1811년 12차 통신사 파견 200주년인 올해는 조선통신사 한·일교류대회(11월 5-6일 쓰시마시), 사진으로 보는 조선통신사 10년 전시 및 사진집(11월 중 부산시청 전시실발간 등)도 추진된다.

김대현 객원기자



사장님, 알고계세요?

은련(CUP)카드는 중국은행 총연합에서 발생하는 중국 유일의 신용카드로 2009년 기준 19억 장의 카드발급 매수와 410조원의 이용실적을 기록!



'은련카드' 가맹점 확대 방안 추진

부산시는 최근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와 이들의 쇼핑 편의를 위해 중국 유일의 신용카드인 '은련카드' 가맹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은련카드는 중국 내 인터넷 대중매체 안내책자를 통해 부산시를 홍보하고, 비씨카드와 부산시는 부산지역 신용카드사용업소를 대상으로 은련카드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 가맹점 가입 설명회 개최, 결제금액 할인 및 사상품 제공, 은련카드 가맹점 지원 등을 추진한다.

시가 은련카드 가맹점 확대에 발벗고 나선 것은 지난해 부산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46만1957명으로 전년(32만730명)보다 41%나 늘어났지만 은련카드 가맹점이 부족해 쇼핑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부산에는 현재 400여 곳의 은련카드 가맹점이 있지만 지난해 실제 결제가 이루어진 곳은 부산롯데호텔, 롯데김해공항면세점, 파라다이스면세점, 신세계 센텀시티 등 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은련카드 가맹점이 확대되면 중국인 관광객의 쇼핑이 활발해져 훨씬 많은 돈을 쓰고 가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시는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쇼핑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중국인 유학생을 활용한 관광통역안내사 양성 등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행 총연합에서 발행하는 중국 유일의 신용카드인 은련카드(CUP)는 2009년 기준 19억 장의 카드 발급 매수와 410조 원의 이용 실적을 기록했다.

김대현 객원기자

부산시민은 물론 외지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수영구 민락공원장과 중구 자갈치공판장에 정식 활어 위판장이 생긴다.

부산시수협은 횃집이 밀집한 수영구 민락동 민락공원장에 활어 위판장을 설치한다고 최근 밝혔다. 위판장은 수변공원 민락항에 부지 93㎡, 총넓이 1050㎡ 규모로 들어선다. 시수협은 또 자갈치공판장에는 관광산업과 연계한 활어 위판장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

민락공판장은 오징어와 이끼에 국한된 위판 범위를 넓혀 울해부터 돌도다리와 광어, 도다리, 가자미, 물메기, 장어 등 자연산 활어 어종 대부분을 위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판장 측은 활어만 전문적으로 위판 취급할 중도메인을 모집하고 있으며, 10명가량의 중도메인을 확보해 이르면 오는 4월 전후 위판활동을 시작한다.

부산시수협의 장운호 사업과장은 "초기에는 현재처럼 소규모로 이뤄지겠지만 활성화되면 공판장 부지에 현대식 수족관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지역은 전국 수산물의 유통 중심기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활어 위판장은 없다. 대대공판장에서 지난 2009년부터 소규모 활어 위판을 하고 있지만, 장소가 협소한 데다 규모도 작다.

민락공판장의 활어 위판도 오징어와 이끼 어종 정도만 이동식 수조에 담아 판매하는 등 구멍가게 수준이다. 반면 전남 완도와 경남 진해, 통영시 등 수산물 유통이 활발한 지역은 대부분 활어 위판장을 갖추고 있으며, 경북 포항시도 오는 4월 완공을 목표로 현대식 활어 위판장을 건립하고 있다.

앞으로 민락공판장에 활어 위판이 정식으로 시행되면 시장을 통해 형성된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수협은 송정, 청사, 해운대, 민락, 남천, 용호, 우동, 미포어촌계 등 주로 동부지역 어민들(50여 명 추정)이 이곳 활어 위판장을 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연안 어민들이 어획한 자연산 활어는 횃집과 중간상인을 통한 뒷거래 형태로 팔리다가면서 정확한 유통물량과 가격 등은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어민들은 항상 걱정만 가격에 보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터뜨렸다. 소비자로서도 위판을 통해 팔리거나 자연산 활어의 유통 경로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시중에 일고 있는 '자연산 횃감'에 대한 논란도 상당 부분 해소된다. 뒷거래가 근절되면서 활어 가격에 대한 행정지도나 가격 통제를 할 수 있어 가격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현 역원기자

수영 민락공판장, 자갈치공판장에 활어위판장 부산 찾는 외지관광객 위해 4월 부터 개장



부산시와 부산발전연구원은 상반기 중 '관광형 바다목장' 사업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빠르면 내년부터 바다목장 조성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부발연은 부산지역 관광형 바다목장을 조성할 적지로 ▷현재 어업형 바다목장이 조성 중인 기장군 일광면 문동리 ▷국가지정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나팔고동 서식지인 사하구 나무섬 ▷부산 유일의 아열대 해양생물 서식지인 사하구 남형제섬 인근 해역 등 3곳을 제시했다. 부발연은 부경대의 도움을 받아 수증 가시거리, 접근성, 해조류 성장 상태 등을 따져 이같이 평가했다. 특히 기장군 문동리는 고리원전 온배수 영향으로 다년생 아열대 해조류가 잘 자랄 수 있고 주변 관광인프라와 연계가 수월해 최적지로 꼽혔다.

사업비 20억 원이던 수심 15m 지점에 인공어초를 넣어 면적 1ha의 관광형 바다목장 한 곳을 조성할 수 있어 부산시나 기장군 차원에서 사업 추진에 나설 것으로 부발연은 보고 있다.

정부가 울진, 태안, 여수, 추자도에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어업형 바다목장과 달리 연안 인공어초 군락에 형성된 해중림(海中林)과 여기에 서식하는 다양한 해양생물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해양생태 관광 자원을 제공하는 바다목장이다. 일반 바다목장은 연안어장에 해역의 특성에 맞는 인공구조물을 투하, 수산자원의 산란·보육·서식장을 조성해 건강한 종묘의 대량방류 등을 통해 수산자원을 증식하는 곳이다.

김대현 역원기자

부산에 관광형 바다목장 조성





4월 22~24일까지 광안리 어방축제 열린다

활어요리 경연대회 · 맨손활어잡기 · 수영 민속공연 등 열려

제11회 광안리어방축제가 오는 4월 22일(금)부터 24일(일)까지 3일간 광안리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린다. 부산을 대표하는 봄축제로서 대표프로그램인 어방그물잡기와 진두어화를 중심으로 축제 분위기를 띄우는 열린마당, 합창단, 시립무용단, 인기가수가 참여해 웅장하고 흥겨운 행사로 시민과 함께한다.

둘째날은 매년 화제를 모으고 있는 거리퍼레이드가 오후 4시부터 시작된다. 1000여명의 주민과 학생이 참여해 수영구청-민락동 회센터 1.2km 구간을 걸으며 전통과 현재, 미래를 주제로 한 개성강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보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 시간을 토요일로 옮기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이어 주무대에서는 KBS-R 즐거운 저녁길 공개방송이 펼쳐진다.

마지막 날은 매년 관람객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활어요리경연대회, 맨손으로 활어잡기, 수영민속공연 등 다양한 체험행사와 KNN소유 랑극단이 열려 3일간의 축제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축제문의 : 구청 문화공보과 051610-4962 / 광안리어방축제.kr

김대현 직권기자

수영 일대 해양레저 타운으로 조성 2020년까지 총 4,200억원 투입, 장기발전계획 수립

민락항 일대에 해상호텔 웨일크루즈를 비롯, 해양종합레저타운을 조성하고 남천항과 광안리해수욕장 일대를 특화된 해양 체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장기 발전 계획을 추진한다.

수영구청은 오는 2020년까지 총 4200억 원을 들여 업무·상업·관광 기능을 갖춘 광안중심권, 문화·상업 기능을 갖춘 수영 부중심권, 체육·주거 기능을 망미생활권, 교육·휴양 기능을 갖춘 광안·남천생활권 등 수영구 4개 권역을 특색있게 개발할 계획이다.

또 우선 민락항 일대에 해양낚시공원과 해양모험체험장, 해양종합레저타운, 친환경에너지 공원 등 체험형 해양 관광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위해 9000급 무동력 선박으로 컨벤션 시설, 해상호텔과 수영장, 극장 및 레스토랑 등 부대시설을 갖춘 웨일 크루즈 도입을 추진한다.

남천항과 광안리해수욕장 일대는 친수공원화 사업과 연안경비 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색다른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1040m 규모의 요트 계류장을 갖춘 남천항 마라나개발 사업 등 해양레포츠 개발사업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광안동 옛 공무원교육원부지(1만9352m)를 부산 영상문화 창조지구로 조성하기 위해 창작공연스튜디오, 창작공연아카데미 등을 확충하기로 했다.

수영강 일대는 수영강변도로 확장 및 해양문화공간, 테마거리 등 시설을 대폭 보강, 다양한 문화예술 및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특화공간으로 자리매김시킨다는 전략이다. 또 건강을 추구하는 추세에 맞춘 그린워킹 프로젝트로 수영구 갈맷길과 게스트하우스, 황령산둘레길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대현 직권기자



부산국제영화제 '제2 도약의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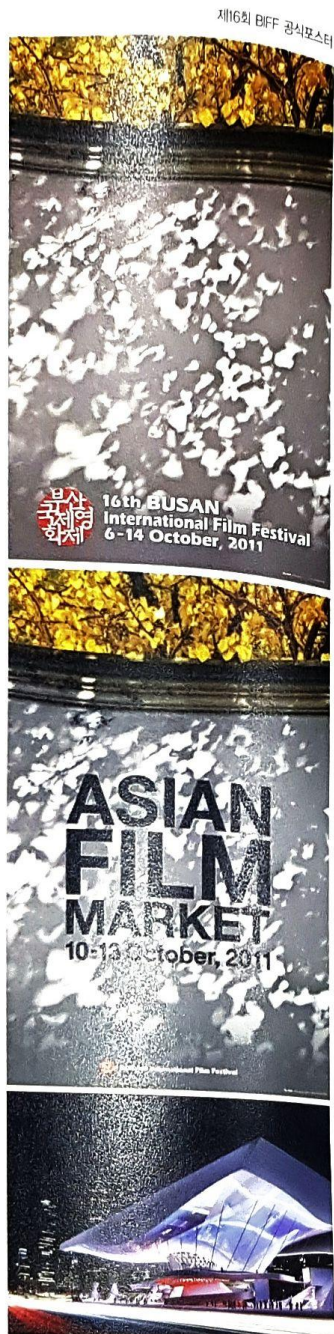
영문표기 'PIFF' 를 'BIFF' 로 변경, 상영관 · 행사장 두레라움으로 옮겨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최근 정기총회를 열고 정관 개정을 통해 부산국제영화제의 영문표기와 주요 행사장 변경을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로써 부산국제영화제 영문표기는 'PIFF(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에서 BIFF(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로 바뀌었다. 조직위측은 "지난 2000년 7월 로마자 표기법 개정에 따라 '부산'의 영문표기가 Pusan에서 Busan으로 바뀌었지만 부산국제영화제는 Pusan을 고수해 왔다"며 "그러나 해외 참석자들이 영화제가 열리는 부산과 부산시를 다른 도시로 오해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영화제가 개최도시마케팅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영문표기를 BIFF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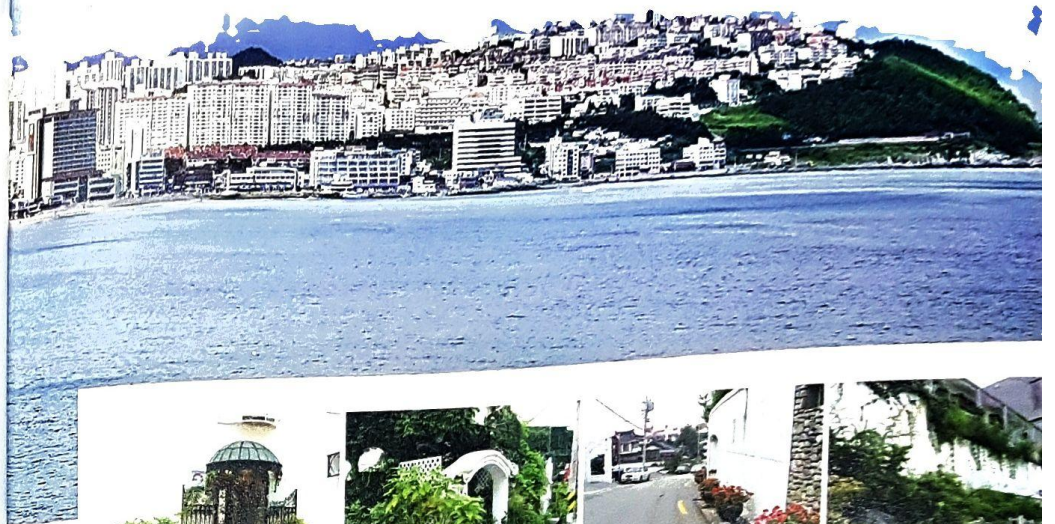
또 올해부터 부산국제영화제와 아시아필름마켓 등의 주요 행사장을 해운대에서 센텀시티로 옮기기로 했다. 부산국제영화제 전용관이자 아시아 최대의 영상센터인 '두레라움'이 개관하기 때문이다. 오는 9월 준공예정인 '두레라움'에는 833석 규모의 다목적 공연장을 비롯, 4개의 상영관, 4000석 규모의 야외극장, 시네마테크 부산, 영화제 사무국 등이 들어선다. 두레라움에선 BIFF개·폐막식과 출품작 상영, 주요행사들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시아필름마켓은 백스코로 이전, 개최된다. BIFF조직위측은 "두레라움은 영화제 기간 외에는 다양한 부대시설과 프로그램을 통해 부산시민과 세계인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은 물론 한국의 영화 문화와 산업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위는 이와 함께 지역 영화산업의 비전을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연구하고, 수익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부산국제영화제 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했다. 다양한 학술행사 및 교육사업을 중점적으로 실행해 자갈이 연구소는 국내 전문가 중심의 단계적 세미나에서 탐구, 전문적인 국제세미나·포럼·컨퍼런스 등으로 개편하고 국제적 수준의 학술지도 발전할 계획이다.

이민지 객원기자



두레라움 조감도



해운대 달맞이언덕 '토요 예술시장' 문화관광 명소로

부산 해운대 달맞이언덕 화랑, 카페, 소극장에서 시민과 작가가 소통하는 새로운 문화 공간이 생긴다. 해운대구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달맞이언덕 해월정 광장에서 '해운대 달맞이언덕 프리마켓'을 마련한다고 최근 밝혔다. 달맞이언덕에서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프리마켓이 열렸는데 시민 반응이 좋아 올해는 공모를 통해 작가를 모집, 3월부터 정기적으로 진행한다고 해운대구는 설명했다.

당일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열리는 프리마켓에는 매주 색다른 아이템으로 30여명의 작가가 참여해 자신들이 직접 만든 소품들을 전시·판매한다. 오후 4시부터는 해피바이러스 공연단이 거리에서 제즈와 추억의 팝송을 들려주고 공연을 원하는 단체들에게는 무대도 제공하게 되며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작가와 함께 손으로 만드는 코너'도 운영된다. 해운대구는 카페가 대기되어서 찻집은 흥이 즐거웠고 있는 달맞이언덕을 문화소통공간이자 색다른 문화관광명소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김대현 객원기자

가격도 스마트! 스케줄도 스마트!
에어부산으로 일본여행이 스마트해진다



에어부산, 후쿠오카·오사카 운항중! 타이페이노선 취항!

지금까지의 일본·타이페이여행은 모두 잊으십시오.
스마트한 항공사 에어부산으로 후쿠오카·오사카·타이페이여행이 스마트해집니다!
에어부산만의 합리적인 가격에 아시아나항공 공동운항으로 편리한 스케줄까지—
이제 에어부산으로 일본·타이페이여행을 가장 스마트하게 즐기세요!

부산	매일 09:40(출발) - 10:30(도착)	후쿠오카 부산	매일 09:30(출발) - 10:50(도착)	오사카
	매일 17:00(출발) - 17:50(도착)		매일 17:00(출발) - 17:20(도착)	
부산	매일 11:20(출발) - 12:15(도착)	후쿠오카 부산	매일 11:50(출발) - 13:30(도착)	오사카
	매일 18:50(출발) - 19:50(도착)		매일 18:10(출발) - 19:40(도착)	

(*) AIRBUS-타이퍼 항공은 정수요입니다. * 항공사별은 정수요이며, 사전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어부산 부산~타이페이 취항으로 상호교류 급증

지역항공사인 에어부산(대표:김수진)이 부산~타이페이간 취항으로 상호교류가 급증하고 있다.

두 지역은 그동안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두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이고, 양측 모두 관광자원이 풍부해 상호교류가 증가할 수 있었는데도 항공편 및 정치적 상황 등으로 20여년째 교류가 정체상태를 보여왔다. 에어부산 취항으로 교류증진의 빠른길이 열린 것이다.

에어부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취항(하루 왕복 1편) 이후 평균 탑승률이 82%대를 유지, 당초 기대치를 훨씬 웃돌고 있다. 타이페이 현지 관광업계도 최근 한류바람과 함께 영남권 핵심도시인 부산으로 매일 운항하는 항공편이 생김에 따라 한국으로 가려는 대만인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다양한 상품개발에 분주한 모습이다. 타이페이 퀴이빙여행사의 왕진풍 상무는 "최근 대만인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수도권으로 몰려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매일 부산으로 운

항하는 항공편이 생김에 따라 국내외의 문의전화도 잦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대만 여행안내 뿐만아니라 부산 해운대와 태종대, 백화점, 경주지역을 연계한 2박 3일 또는 3박 4일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타이페이에는 세계 4대 박물관인 고궁박물관과 연중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세계에서 두 번째 높은 건물인 101빌딩을 비롯해 주변으로는 한국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유명한 온천이 산재해 있다. 양명산 등 해발 3천 900m를 넘는 고봉이 즐비해 산악인들도 많이 찾고 있다.

8천년 중국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타이페이 고궁박물관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세계 4대 박물관 중 으뜸이다. 연중무휴로 365일 개관하는 이 박물관에는 중국이 자랑하는 국보급 문화재 75만 여점이 전시되어 있으며 장제스 총통기념관, 101빌딩 등도 꼭 둘러야 할 관광코스다.

김대현 객원기자

일본 지진으로 부산 관광산업 타격 장기화

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부산지역 관광산업의 타격이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됐다. 부산발전연구원은 21일 '일본 대지진의 충격과 향후 전망'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대지진 충격으로 일본인 관광객의 한국행 예약 취소 사태가 잇따르면서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 백화점, 면세점 재래시장 등이 타격을 입고 있다. 한일 직항 항공노선의 증설과 여객노선 구축으로 공항·여객터미널로 입국하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였으나 지진 발생 이후 크게 감소했다. 일본인의 한국 관광 성수기가

3~4월과 9~10월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항만·물류도 일본 동북구 센다이항, 하치노헤항, 오하나마항, 히타치나카항, 오후나토항 등이 폐쇄돼 화물운송에 차질을 빚고 있다. 도쿄항, 요코하마항, 고베항, 오사카항 등 대부분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대형 항만이 간재해 직접적 영향은 미미하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가변적이라고 지적했다.

관광과 항만·물류 외에 다른 산업분야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대현 객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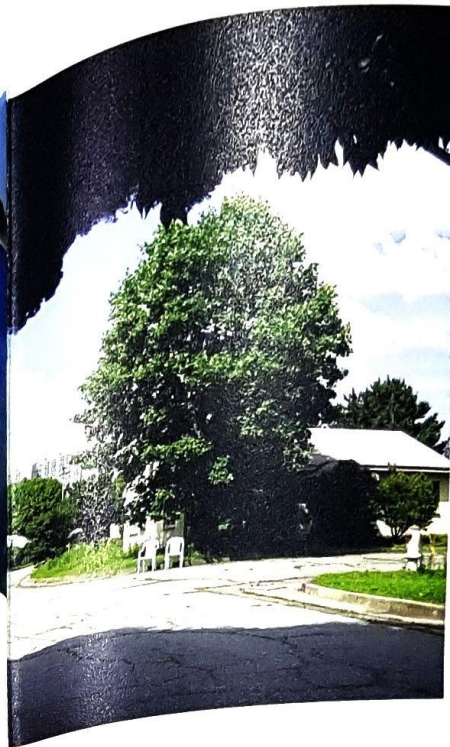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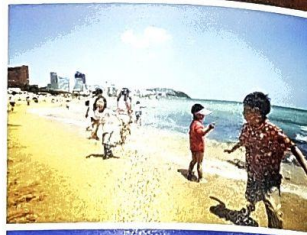
부산해수욕장 사계절 활성화 추진

관광객들이 부산지역 해수욕장을 사계절 내내 찾도록 하기 위해 부산시와 구·군, 학계, 시민들이 발벗고 나섰다. 부산시와 구·군은 올해 처음으로 7, 8월 뿐 아니라 5, 6, 9, 10월에도 일부 구간에 한해 수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기간은 기존 2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게 된다. 해운대, 광안리, 송정, 송도해수욕장은 5-10월, 다대포해수욕장은 5-9월 수영이 가능하다. 해당 구청은 이 기간 임해행정봉사실을 운영하고 수상구조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지난달 부산시와 부산발전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부산지역 해수욕장 사계절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도 이색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해운대, 송정해수욕장은 해운대지역 관광자원과 산업자원을 연계해 '고골격 종합해양레저타운 마린 폴리스'를 조성, >생태자연휴양루트>역사문화탐방루트>해양여가레저루트>지역특구(컨벤션·영화·영상·문화) 연계루트 같은 다양한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고 겨울철 크리스마스 트리축제를 열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광안리해수욕장은 봄이나 가을에 주변 1,000여 개의 레스토랑과 커피전문점이 참여하는 '제제음식·커피축제'를 개최하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롬바르드 스트리트'처럼 광안리 바다를 볼 수 있는 꽃길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송도해수욕장은 해상 영화관·거북섬 인대 해상 항공레저터미널·해상 선박공연장·해상 돌고래쇼강·해중 레스토랑을 조성해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다대포해수욕장은 인근 을숙도와 연계한 생태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징타워 레스토랑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대현 객원기자



옛 하야리아 명칭 '부산시민공원' 최종 확정



옛 하야리아 명칭 '부산시민공원' 최종 확정 2014년 말 조성완공키로

부산시는 부산진구 옛 하야리아부대 부지에 조성되는 공원의 명칭이 '부산시민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명칭선정위원회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시민 2007명과 출향인사 166명 등 2173명을 대상으로 >부산시민공원 > 부산대공원 > 너울공원 > 부산공원 > 부산가온공원 등 5개의 명칭 후보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부산시민공원이 1위를 차지했다.

부산시 최정호 시민공원추진단장은 "부산시민공원은 부산시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원으로 부산의 지역성과 개방성을 의미

하는 명칭'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공원 명칭과 부합하는 (트랜드 이미지 통합)을 오는 5월까지 개발해 공원에 대한 일관된 이미지 형성을 통해 차별성과 선호도를 높이고 각종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한화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해 이달 말부터 부지 내 토양오염(5만 23㎡)에 대한 정화작업에 들어가고 오는 7월 착공해 2014년 말까지 공원 조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대현 객원기자

'한국음식' 최고의 관광브랜드

방한 외국인 한국 대표매력으로 음식 꼽아



방한 외국인들은 한국의 매력으로 음식을 첫 번째로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4개 공항, 인천항을 비롯한 2개항에서 한국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외래 관광객 1만150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여행 실태를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방한 외국인들이 한국여행을 결정할 동기로 1위는 한국음식, 2위는 가까운 거리, 3위는 한국에 대한 호기심을 꼽았다. 업계관계자들은 음식을 비롯한 한국전통을 소재로 한 MBC드라마 대장금이 일본·중국·대만 등지로 수출돼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한국음식에 많이 들어가는 고추, 마늘 등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한국음식의 인기에 힘을 더해줬다. 이에 따라 방한외국인 중 20.3%가 한국여행의 동기로 음식을 꼽았으며 여행객의 절반 가량이 한국음식에 관심이 있다고 대답했다. 또 방한기간 중 주요활동에는 쇼핑 58.9%와 관광지 방문 56.1%에 이

식도락을 꼽는 관광객이 38.9%를 차지했다.

한국음식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편으로 매우만족이 27%, 만족이 43.7% 등으로 5점 만점에 평균 3.93을 기록했다. 이외에 출입국 절차 4점, 대중교통 3.85점, 숙박이 3.96점, 쇼핑이 3.86점을 기록했다. 한국여행 시 인상 깊었던 점으로도 한국음식이 2위를 기록했다. 방한 외래객 중 48.5%가 '음식이 맛있었다'는 것을 한국의 매력으로 꼽았으며 안전성(43.2%)과 독특한 문화유산(40.8%)이 뒤를 이었다. 한국인의 친절함을 매력으로 꼽는 외국인은 58.6%로 1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다채로운 매력 덕분에 관광객들의 한국여행에 대한 평가도 점차 좋아지고 있다. 한국여행을 매우 훌륭하다고 답한 사람은 24.5%, 훌륭하다고 답한 사람은 59.9%로 평균 4.08을 기록해 지난해 4.05보다 소폭 상승했다.

이민지 객원기자

'Berry Berry 딸기축제!'

〈따뜻한 봄을 맞아 진행되는 티파니21의 딸기디저트 뷔페〉

고품격 선상파티크루즈 티파니21은 3월, 따뜻한 봄을 맞아 상큼한 제철과일인 딸기메뉴로 고객들을 맞을 준비가 한창이다. 3월1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berry berry 딸기축제'에는 행사기간 동안 디너투어에 다양한 딸기메뉴가 뷔페로 제공될 예정이다. 선상에서의 즐거운 만찬에 새콤달콤하고 예쁜 딸기디저트까지 맛볼 수 있는 이번 축제는, 다양한 딸기의 맛에 반해 매년 많은 고객들이 기다리는 행사이기도 하다.

축제를 맞아 준비되는 메뉴로는 딸기 샐러드, 딸기 초밥, 딸기 또띠아 살몬롤, 딸기 타르트, 딸기 미니케이크, 딸기 요거트, 딸기 무스 등이 있으며, 매일 최상급의 재료를 선별해 티파니21 조리팀이 직접 조리하는 디너메뉴 또한 찾아오시는 고객들에게 실망을 드리지 않는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다. 행사기간 승선 고객에게 제공되는 응모권을 추가하여 오륙도 유람선 '동백호' 승선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되니 봄의 따스한 바다를 즐기러 해운대 티파니21로 가보자.

- 예약 및 문의 : Tel. 1577-7721, (051)743-2500
- 홍보담당 : 이현화 010-5451-7640



이민지 객원기자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최초의 '서식지외 보전기관' 부산아쿠아리움, 멸종위기 동물 보전기관 선정

부산아쿠아리움은 지난 2월 국내 최초로 국토해양부로부터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바다거북 치료 및 구조, 국립수산물과학원과 MOU 체결을 통한 다양한 해양생태보호 활동을 인정받아 국토해양부가 지정하는 최초의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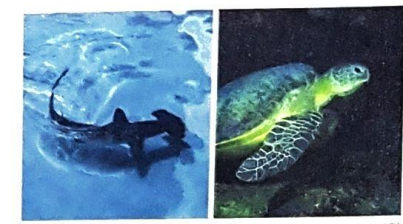
서식지외보전이란, 야생 동, 식물을 그 서식지에서는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해 서식지 외의 시설에서 인위적으로 증식, 다시 야생에 복원하는 것을 말한다.

부산아쿠아리움은 멸종위기 종인 푸른바다거북을 비롯하여 상어 10종, 박벨리해마, 상괭이 등의 보호, 보전, 복원을 위해 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해양생태연구의 기본 인프라 구축과 각종 예산을 국비로 지원 받

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바다거북에 대한 구조, 치료정책과 산란지복원 등의 해양동물보존 장기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051-740-1700 / www.busanaquarium.com)



보전대상 해양생물로 지정된 부산아쿠아리움의 귀상어(좌)와 바다거북(우)

김해공항, 여행자 분실물센터 개설

김해공항에 처음으로 여행자 분실물센터가 개설됐다. 김해세관은 국제선 청사 입국장 옆에 각각 여행자 분실물 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김해공항엔 그동안 청사 안이나 항공기 내에서 휴대품을 분실했을 경우 미땅한 분실물 보관장소가 없어 항공사나 경찰에서 나눠 보관하는 실정이었다. 또한 휴대품을 잃

어버린 여행객들도 어디에서 분실물을 찾아야할지 몰라 헤매는 경우가 많았다.

분실물을 찾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안내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분증 사본을 보내고 본인여부가 확인되면 택배로도 분실물을 받을 수 있다.

안내센터 T.051)970-3167

김해공항·인천항 무인출입국심사대 설치

현재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만 설치된 무인자동출입국심사대가 올 상반기 김해공항과 인천항에도 설치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인천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최근 인천공항 2층 비즈니스 센터에서 '선진 출입국심사 체제 구축 및 외국인 관광객유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이같은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이 협약에 따라 인천공항(24대)과 김포공항(2대)에 설치된 무인 출입국심사대는 상반기 김해공항과 인천항에 각각 3대, 2대가 새로 설치된다. 이는 오는 12월 전면 시행되는 외국인 지문확인제도를 앞두고 국민의 무인심사대 이용률을 높여 심사장 혼잡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무인심사대가 늘어나면 지방 공항·항만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더 신속하고 간편하게 출입국심사를 받게 된다.

'관광한국'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입국심사부스를 정면에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외국인 관광객 확대를 위해 재외공관 사증발급 및 출입국심사장에 업무 도우미를 배치하거나 크루즈관광 활성화를 위한 입국심사 간소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제주지역 무사증 입국 제도 지속운영 및 무단이탈자 발생 방지, 사증발급 절차 및 서류 간소화, 서비스 개선을 위한 홍보·캠페인 협력 등도 추진한다.

이민지 객원기자

<울속도환경포럼>

“울속도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바꾸자”

울속도의 환경과 생태에 관한 토론회가 3월 15일 오후 2시부터 약 70분간 '울속도환경포럼' (대표 이수옥) 주최로 사하구청 2층 상형실에서 울속도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바꾸자는 주제아래 관계자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현기환 국회의원(한나라당 사하갑), 최인호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이경훈 사하구청장

을 비롯한 시·구의회 의원과 울속도 환경포럼회원 그리고 페널리스트로, 이수옥(울속도환경포럼 대표), 김척수(부산광역시의원), 손해식(동아대명예교수), 이유상(사하구 축제위원장), 황영현(동아대학교교수) 박사 등이 울속도의 생태환경개선과 세계적인 관광명소 만들기 관련 여러 제안을 제시하고, 토론을 전개하였다.

부산광역시 관광협회 2011년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부산광역시관광협회(회장 이근후)는 지난달 28일 부산롯데호텔에서 2011년도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회원사 대표(대의원)등 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2010년 주요 업무 보고와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2011년 주요 사업 계획과 예산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했다.



한국관광의 봄, “대구경북국제관광박람회” 엑스코서 4월 15일 첫시작

- ▶ 4월 15일 ~ 18일(4일간) 대구 EXCO 1, 3층 전시장
- ▶ 다양한 국내외 여행정보와 관광축제의 장
- ▶ 대구경북특별여행상품관, 투어엑스포관광할인쿠폰전 등 실질적 B2C 관광장터 행사
- ▶ 다문화가족투어체현, 관광스텝트레일, 여행설명회 등 시·도민 직접 참여 행사 확대

이어 올해도 약 70,000여명의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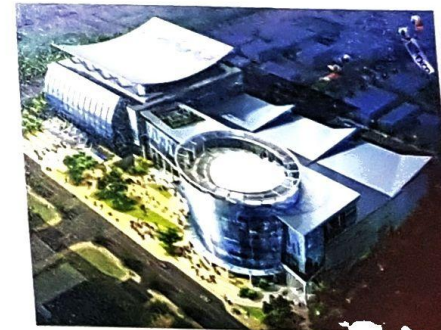
대구경북국제관광박람회사무국
Tel. 053)601-5401 Fax. 053)601-5405
www.touexpodaegu.co.kr

이민지 객원기자

'제9회 대구경북국제관광박람회(The 9th Tour Expo Daegu Gyeongbuk)'가 오는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대구전시컨벤션센터(EXCO) 1, 3층 전시장에서 개최된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공동주최하고 대구광역시관광협회, 경상북도관광협회, (주)코트파에서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대구·경북을 비롯하여 국내외의 200여개 업체(기관)가 참가해 관광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국내외 전통 민속 공연팀의 화려한 퍼포먼스와 함께 시작되는 대구경북국제관광박람회는 2003년 첫 행사 이래 올해로 9번째 맞아 한층 더 다채로운 관광프로그램 및 여행정보를 준비하였으며,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해 즐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특별행사 및 부대행사가 진행되며, 작년엔



부산 시티버스 운행코스

해운대·태종대 야경코스



광안대교

부산 제일의 랜드마크 광안대교! 바다 위 보석처럼 빛나는 명품 브릿지 광안대교는 국내 최초의 해상 복층 현수교이다. 10만 개에 이르는 형형색색의 LED 조명 불빛이 만들어내는 빛의 파노라마는 1년 365일 날마다 새로운 추억과 낭만을 선사한다.



금련산 청소년수련원

야영 체험과 도자기 체험, 공예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부산최대의 인공암벽장을 마련해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다. 부산시내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금련산 정상에 위치한 금련산 청소년 수련원은 야경을 감상하기에도 안성맞춤인 동시에, 부산 유일의 천문대를 통해 밤하늘을 관측할 수도 있어 부산시민의 휴식 장소로 크게 사랑받고 있다.



달맞이길

봄이면 흐드러지게 만개한 핑크빛 벚꽃길이 펼쳐지고, 밤이면 달빛따라 걷는 해안 산책길 문탠로드가 이어지는 달맞이길! 정월 대보름, 이곳에 위치한 해월정에서 사랑을 약속하면 평생 사랑이 이루어 진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부산박물관

멀고 먼 선사시대부터 삼한 삼국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와 근대에 이르기까지 부산 지역의 역사를 한 눈에 살펴 볼 수 있는 부산시립박물관! 부산시립박물관에서 살아 숨 쉬는 부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만나보자.



UN기념공원

세계평화와 자유의 대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유엔군 장병들! 한국전쟁 UN참전군 전사자의 넋이 잠들어 있는 UN기념공원 내에는 UN참전비와 각국 전사자들의 묘, 아름다운 조각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들을 추모하기 위한 사람들의 발걸음은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울속도 자연생태 코스



“서부산의 절경과 자연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울속도 자연생태코스”



암남공원

천혜의 해안절경을 자랑하는 암남공원 이곳에는 드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상쾌한 기분으로 산책할 수 있는 해안산책로와 수심이 깊지 않아 낚시하기 좋은 낚시터가 조성되어 있다. 또한 연인들의 드라이브 코스로도 인기가 많다.



다대포해수욕장

부산의 6대 해수욕장의 하나인 다대포해수욕장! 이 곳 갯벌에는 여러 가지의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아이들의 자연학습장으로 인기가 많다. 또한 다대포해수욕장 주변에는 다대포 객사, 돌은대, 윤공당 등 문화유적이 많으며, 세계 최대의 바닷분수로 기네스북에 오른 낙조분수는 관광객들의 커다란 인기를 얻고 있다.



아미산전망대

백조 무리가 새하얀 목화송이처럼 정점이 갯벌에 앉아 있는 모습이나 도요새 떼가 하루 사자를 날아오는 광경을 바라볼 수 있는 천혜의 탐조 장소, 아미산 전망대! 그 밖에도 발아래 낙동강하구 모래섬으로 이루어진 삼각주 지형과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현상을 한눈에 관찰 할수 있다.

울속도예코센터

세계적인 칠새도래지 울속도 칠새공원을 보전·관리하고, 자연생태를 전시, 교육, 체험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인 울속도 예코센터! 그 밖에도 낙동강 하구에 대한 관광객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전시와 상영을 하고 있다.



이호영 기자 | tourbusan@daum.net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선데이 스파패키지

환상적인 바다 전망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발코니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디럭스룸(해변 정원 객실 기준)에서의 1박과 동양식 오리지널 르보아 스파(20만원 이용권, 다양한 특전들을 포함하여 30만원(봉사료, 부가세 별도)에 선보인다.

패키지 이용시 제공되는 특전으로는 스파 이용 후 룸서비스로 제공되는 클럽 샌드위치와 쥬스 이용권,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랑하는 노천온천과 야외수영장 무료이용, 사우나 1만원 할인권, 호텔 내 레스토랑 1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즐길 수 있다. 2만 5천원 추가시 동유리로 푸른 가든과 시원한 해변이 한눈에 보이는 뷔페레스토랑 '에스카피에'에서의 조식을 이용할 수 있다. ☎051)749-2111

신선한 빵과 세계와인이 한자리에...

오는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동안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본관 1층 로비에서 '제29회 제과제빵&와인장터'를 개최한다.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의 이 축제는 맛있고 신선한 빵을 대폭 할인된 가격에 맛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 문의 및 예약 (051)749-2258

부산롯데호텔 스포츠스타룸



野生野死 도시에 스포츠스타룸 탄생 3월 25일, 추신수와 롯데아이언즈 스타룸 첫 선

야구의 도시 부산에 또 하나의 야구 컨텐츠가 탄생한다. 부산출신 메이저리거 추신수 선수와 롯데아이언즈의 홍성흔, 조성환, 강민호, 전준우 선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한 부산롯데호텔(대표이사 이동호)는 프로야구 개막일을 앞두고 이들의 이름을 딴 스타룸을 오픈하고, 대대적인 야구 붐 조성에 나선것.

호텔 26층과 27층의 스위트룸을 개조해 만들어 지는 2개의 스타룸은 '추신수룸'과 '롯데아이언즈 4스타룸'으로 이름 붙여지게 되며, 5개월에 걸친 자료수집과 디자인설계, 인테리어 공사를 거쳐 오는 3월 25일 야구 팬들에게 첫 선을 보이게 된다.

스타룸 제작을 위해 미국 애리조나에 있는 추신수선수 자택까지 방문해 소장품을 수집하는 등 그동안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선수들의 소장품이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 애장품들을 모아 객실 내부에 디스플레이된다.

추신수룸에는 단 하나뿐인 특수제작 베드와 본인이 직접 신었던 야구화, 아시아게임 국가대표 유니폼, 초등학교 야구부시절 사진들이 전시되며, 롯데 아이언즈룸은 네명의 스타들이 직접 착용하거나 입고 다녔던 소중한 물품들과 각종 수상트로피 등 평소 가장 아끼는 소장품들로 가득 채워진다.



☎ 문의 및 예약 (051)810-5520

www.lottehotelbusan.com | blog.naver.com/blotthotel

노보텔 엠배서더 부산



"Feeling the Spring air"

노보텔 엠배서더 부산의 프리미엄 뷔페 레스토랑 '씨스케이프스'와 캐주얼 레스토랑 '칩스틱스 앤 피자'에서는 3월 15일부터 봄나물 특선을 선보인다. 씨스케이프스에서는 썩, 갯잎, 원추리, 미상 등의 각종 봄나물 튀김과 전을 비롯해 냉이, 달래, 민들레, 두릅, 머위 등의 봄철 약초 나물을 선보일 예정이며 칩스틱스 앤 피자에서는 냉이 된장찌개와 갈비 또는 생선구이, 각종 봄나물 무침이 세트로 구성된 돌솥 봄나물 비빔밥과 명계 새싹비빔밥을 특선 메뉴로 선보인다. 봄나물은 약초와도 곁아서 무거운 몸을 활력있게 만들어주며 면역력을 높여주고 감기와 춘곤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봄기운을 한껏 머금은 각종 봄나물 요리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이번 프로모션은 4월 5일까지 진행된다.



☎ 문의 및 예약 (051)743-8265

씨클라우드 호텔



Spring 패키지

유난히 추웠던 겨울을 뒤로하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여 해운대 씨클라우드호텔에서는 "Spring패키지"를 선보인다. 바다내음 풍기는 해운대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고객을 위해서 선보이는 이번 패키지는 혼잡한 주말보다는 주중에 이용할 시 더 큰 혜택을 선사한다. 주중(일요일~목요일)에 이용하시는 고객을 위해서 무료 업그레이드를 실시하여 조금 더 전망 좋은 객실에서 해운대 바닷가를 조망할 수 있다.(단, 호텔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여행의 깊이를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는 특별 엄선된 와인용 패키지를 이용하시는 모든 고객들에게 제공한다.

이번 패키지에는 2일 조식과 객실 내 와인 1병을 제공한다. 그리고 해운대 관광의 더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주변 관광지 할인권 등을 제공한다. 부산아쿠아리움 20%할인, 부산아쿠아리움 3D Rider 30% 할인, 티파니 21 크루저 15% 할인, 동백유림산 10% 할인 등 혜택을 준다.

가격은 150,000원(부가세 별도, 주말(금&토요일)·공휴일 전날 30,000원 추가)이며,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선보인다.



☎ 문의 및 예약 (051)833-1000

호메르스호텔



봄 새싹 패키지와 프리미엄 더블패키지

[Plan A]

- 비치 디럭스룸 140,000원, 시티 비즈니스룸 100,000원
봄향기 가득한 광안리해변, 호메르스호텔 봄의 새싹조식과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사우나와 찜질방을 체험하며, 디럭스룸에서 1박하는 실속 패키지!
- 주말(금/토/공휴일) 디럭스 40,000원, 비즈니스 20,000원 추가

[Plan B]

- 비치프리미엄 패키지 250,000원
새롭게 단장하여 선보이는 프리미엄 더블 객실, 넓은 객실과 독특한 인테리어로 뷔티크호텔의 특성을 살린 룸에서 1박하며, 2인 조식과 휘트니스센터, 인터넷이 무료 제공되는 고급패키지!
- 세금 10%, 봉사료 10% 별도 • 기간 : 2011년 4월 30일



객실에서 내려다 본 광안대교 야경

문의 및 예약 (051)750-8000

아쿠아펠리스호텔



온천수와 함께 즐기는 사계절 워터파크

부산의 상징 다이아몬드 브릿지(광안대교)와 함께 어우러진 아쿠아펠리스 리조트 호텔은 78개 전객실이 해변쪽으로 향하고 있는 부산 유일의 온천 호텔입니다.

아쿠아펠리스에서 사용하는 지하 816m에서 뽑아 올린 심층암반 해수, 그 자체가 38°C의 심해수 온천이며 오랫동안 숙성되어 이온화된 물로서 80여종 이상의 몸에 유익한 미네랄이 가득하여 피부와 미용 그리고 건강에 좋은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해수 온천을 사용하는 워터파크 시설은 100m의 바디슬라이더와 파도풀, 유수풀, 비데풀 등이 있으며 수중헬스장비가 설치되어 있어 수준중동의 즐거움을 배가시켜 줍니다. 이외에도 피트니스 클럽, 요가, 에어로빅, 신내골프연습장, 수영장이 있어 종합레저시설로서도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문의 및 예약 (051)790-2345~6

호텔농심



카리브해의 햇살과 정열을 담은 라틴프로모션

호텔농심 레스토랑 '이스탄불'에서는 봄을 맞아 4월까지 카리브해의 햇살과 정열을 담은 '라틴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프로모션 기간동안 실란트로, 아보카도, 데킬라, 포피야, 케사디아, 타코, 해산물 등 라틴아메리카의 풍미가 가득 담긴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셀러드바를 운영하며, '흑마늘, 적양파젼, 아스클리와 고급 쇠고기 안심스테이크', '데킬라와 라임에 절여 구운 새우 꼬치구이' 등 주방장 스페셜 메인요리를 선택해서 즐길 수 있다.

침례대사관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모션에서는 라틴음식 뿐만아니라 칠레의 국치, 브로셔, 책 등이 비치되어 칠레의 정취를 느낄 수 있으며, 칠레, 아르헨티나 등 라틴아메리카의 와인도 함께 즐길 수 있다.

- 브런치뷔페 19,000원 • 디저트&와인뷔페 32,000원 (세금 및 봉사료 별도)



문의 및 예약 레스토랑 이스탄불 (051)550-2301

부산관광호텔



비즈니스패키지 쇼핑, 관광, 비즈니스를 한 번에...

37년 전통의 고품격 서비스 부산의 랜드마크 자리잡은 부산관광호텔에서는 비즈니스 패키지를 마련하였습니다.

롯데백화점(광복점), 남포동 거리,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PIFF광장, 용두산공원 등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로 비즈니스와 쇼핑과 관광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시설 : 전 객실 온열기능비데, 전 객실 초고속 인터넷망, 전 구간 Wi-Fi, 편의점, 사우나 등

	객실정액	조식인, 사우나50% 포함패키지
Standard	120,000	82,000
Suite	160,000	102,000



객실



예식장



사우나



문의 및 예약 : (051)241-4301~9 FAX. 244-1153
www.pusanhotel.co.kr



부산시립요트경기장

비약이 기대되는 부산의 마린레저

부산은 한국 마린 레저의 중심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의 요트경기 개최지로서 수영만에 요트경기장이 정비됨에 따른 영향이 크다. 그것뿐만 아니다. 부산은 요트에 있어서는 뛰어난 환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마린 레저의 메카로서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요트로 출항해 보자. 마리나를 출항해서 30분쯤 달리면 눈앞에 180도 이상 수평선이 끊임없이 펼쳐진다. 우선 부산시립요트경기장처럼 도심에 가까운 마리나는 거의 없다. 그리고 도심에서 바다에 직접 면해 있는 마리나는 더욱 드물다.

마리나 주변에는 해운대 해안, 송정, 광안대교, 오륙도, 태종대, 다대포, 가덕도 등 경승지가 많아서 크루징 스포츠에는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아득히 먼 곳을 상상하는 것도 좋지만, 바다에서 바라보는 부산의 풍경은 육상에서 보는 것과는 아주 다른 표정을 보여 주어서 몇 번이나 봐도 질리는 일이 없다. 또 부산을 방문하는 외국의 요트에 있어서 대단히 기쁜 일이 있다. 요트경기장이 있는 수영만은 부산항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외국선은 자유롭게 입항할 수 없는 '불개항 지구'이지만, 외국에서 오는 요트나 보트는 365일 언제든지 요트경기장에 직접 입항해서 출입국 CIQ 수속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외국요트협회 등의 노력으로 몇 년 전부터 요트경기장에서도 수속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요트 레이스도 좋다. 연간 10회 정도 개최되고 있는 레이스는 광안대교 부근을 출발해서 오륙도를 왕복하는 코스나 해운대 해수

욕장 앞바다에 마크 부이를 치고 레이스를 실시한다. 부산 제일의 경승지에 둘러싸여 바람과 조류를 읽으며 긴박한 분위기 속에서 실시하는 레이스는 일상을 잊게 하는 귀중한 시간이다.

부산 시내에서 조금 서쪽으로 발길을 뺀채 가덕도를 지나면 부산의 바다와는 아주 다른 경치가 모습을 드러낸다. 작년 12월에 개통한 가가대교를 밑에서 올라다보며 서쪽으로 나아가면 한반도 남부와 가제도 등의 섬들을 둘러싸인 복잡하게 뒤얽힌 해안선의 바다가 출현한다. 해안까지 바짝 다가선 거리풍경, 해변에 지어진 교회 등 차례로 경치가 변화해서 부산과는 아주 다른 별세계를 만난다. 부산에서는 1박 2일로 간편하게 멋진 크루징을 즐길 수 있다.

또 남쪽으로 눈을 돌려 30miles쯤 가면 일본 쓰시마에 이른다. 개항인 히타카스까지도 40miles 미만이다. 30t 클래스의 요트로 7~8시간으로 해외 크루징을 즐길 수 있다. 한층 더 발길을 뺀다면 약 110miles 지점에 하카다, 170miles 지점에 나가사키가 있다. 최근에는 나가사키를 방문하는 부산의 요트도 많다.

이처럼 지리적으로 혜택을 받은 환경에 박차를 가하듯이 국제 레이스도 활발해지고 있다. 부산에서 하카다까지 약 110miles(약 200km)를 달리는 '아리랑레이스'는 1973년부터 개최되어 2011년 올해로 20회째를 맞이한다. 2009년 레이스에는 참가한 30척의 요트 중에서 6척이 한국의 요트이고, 2007년에는 한국의 요트가 우승했다. 동시에 개최되고 있는 '부산컵'도 올해로 6회째가 되어 외국에서 참가하는 요트가 많아졌다. 2009년부터는 해운대 해수욕장 앞바다에서 '월드 레이디스 매치 레이스'가 개최되어 세계 제



사사키 야스오
나가사키시 부산사무소 소장
(사)나가사키요트클럽 회장



레이스중인 프랑스 요트 '엑셀런스'.

선급의 레이스를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요트경기장을 2013년에는 현재의 1.5배 규모로 확장한다는 의안이, 작년 부산시의회에서 통과되었다는 뉴스를 신문보도로 알았다. 요트경기장은 몇 년 전부터 거의 포화상태이며, 부산을 방문하는 외국의 요트는 계류장을 확보하기 어렵고 아리랑레이스처럼 30척이 넘는 외국의 요트가 기항하는 국제레이스 개최 시에는 가설공문을 설치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기쁜 소식이다.

이처럼 부산은 국내 마린 레저의 거점일 뿐만 아니라 해외 거점으로서의 지위를 굳히고 있다. 그렇지만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마린 레저가 건전하게 발전하고 해외에서 요트나 보트가 많이 왕래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과제가 있다.

첫째, 마린 레저를 대중화하는 일이다.

세계제일의 요트 왕국인 뉴질랜드 오클랜드시는 요트나 보트를 4세대에 1척은 소유하고 있어서 'City of Sail'이라고 할 정도이다. 요트를 늘리고 요트 애호가를 늘려서, 요트를 대중의 레저로 만드는 일이 마린 레저를 문화로서 뿌리내리게 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트는 고가라는 이미지를 버려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요트는 일부 부자들의 놀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보통 샐러리맨이 공동출자해서 요트를 구매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내가 활동하고 있는 나가사키에는 약 260척의 크루저 요트가 있는데, 그 중 80% 이상은 복수의 공동 소유주이다. 자동차 1대분의 자금으로 두세 명이 모여서 작은 중고 요트를 구매할 수 있다. 내가 소유하는 36t의 요트도 친구와 둘서 소유하고 있다.

샐러리맨 소유주를 늘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요트경기장 계류비는 너무 비싸다. 30t로 1개월에 약 42만 원으로는 샐러리맨에게는 좀 힘들다. 계류비는 일본 마리나의 요트 계류비를 참고로 해서 산출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원래 일본의 간토지구는 요트 선진국인 유럽이나 뉴질랜드 등에 비교해서 계류비가 지나치게 비싸다. 유럽

의 요트 선진국인 프랑스에서는 30t로 1개월에 20만 원 이하가 일반적이다. 요트경기장을 새롭게 조성할 때는 요트 추진국인 일본이 아니라 유럽의 요트 선진국을 꼭 참고하기 바란다.

둘째, 요트클럽생활(Yacht club life)을 권유하고 싶다.

바다에서의 레저는 밤심이 금물이다. 기본적인 항해술이나 조종술은 물론, 해도를 읽고 침로를 정하고, 일기도를 보고 바람이나 기후의 변화를 예측해야 한다. 특히 부산의 주변해역은 날씨가 급변하기 쉽다. 안개도 많고 조류도 빠르다. 1시간쯤 앞바다에 나오면 4m가 넘는 파도를 만나는 일은 자주 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의 습득이나 판단력을 기르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린다. 그것들을 보완하는 것이 요트클럽이다. 요트클럽에서 동호인을 늘려서 요트 인구를 늘린다. 요트클럽에서 일상적으로 레이스나 크루징을 실시하고 기술을 연마한다. 요트클럽에서 멤버의 가족이나 아이를 태워 신인 크루저나 주니어 요트맨을 육성한다. 마리나를 방문하는 요트 동호인의 요트 파티도 이 이상 즐거운 일은 없다. 요트클럽 생활은 요트 대중화의 열쇠이다. 게다가 요트클럽은 사고장이다. 세계 각지에서 부산을 방문하는 요트나 보트를 맞이할 때에 호스피탈리티를 발휘하는 것도 요트클럽의 중요한 클럽생활(club life)의 하나이다. 새로운 요트경기장은 클럽 하우스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

한국 정부는 지금 전국의 여러 곳에 부산의 요트경기장과 비슷한 마리나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요트는 확실히 증가할 것이다. 그때에는 한국 내의 마리나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크루징 정보의 공유화를 도모하는 등, 외국의 요트를 따뜻하게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새롭게 완성되는 신요트 경기장이다.



호텔리베라해운대

고객을 가족처럼 모시는
다시 찾고 싶은
“호텔리베라해운대”

호텔리베라해운대는 비즈니스와 쇼핑 그리고 생활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BUSINESS & RESORT HOTEL입니다.



9~7F 객실 16F 비즈니스센터
9F 프론트·로비라운지 8F 레스토랑·연회장과 웨딩홀

문의 및 예약 (051)740-2111 Fax. 740-2100
www.rivierahotel.co.kr



新외식문화 - 광안리 해수욕장의 中心!!

GUESS WHO? 는

1991년 4월 9일 오픈한 전통있는 게스후 패밀리레스토랑입니다.
저희 업소는 광안리 바닷가 테라스가 중앙에 있으며,
광안대교가 다 보이는 야경과 아름다운 테라스가 있는 분위기 좋은
부산의 명물 게스후 패밀리레스토랑입니다.
저희 업소는 항상 타 업소의 모범이 되기 위해 실력과 능력으로
승부하는 프로근성을 가진 직원들과 오랜 경험의 노하우와 경력으로
게스후 패밀리레스토랑 전통의 맛을 오래도록 지키며
항상 고객에게 걸맞는 멋진 맛을 선사 항상 손님에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와
이벤트를 준비하기가 일품입니다.
항상 고객에 이상 주차 할 수 있는 대대시설로서
맛과 서비스에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GUESS WHO?

COFFEE & PIZZA FAMILY RESTAURANT

노래는 사랑도	2F 日式 กิน자	GUESS WHO?	3F Song of Joy	1F 맛보로하루
---------	---------------	------------	-------------------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200-1번지
Tel. (051)757-1213~4





“네처럼 편안한 호텔
 가족처럼 정이드는 호텔”

37년 전통의 고품격 서비스로 부산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부산관광호텔에서는
 비즈니스 패키지를 마련하였습니다.

롯데백화점(광복점), 남포동 거리,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PIFF광장, 용두산공원 등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로 비즈니스와 쇼핑과 관광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15F	오페라 / 객실
3F~15F	객실
3F	사우나 / 이용원
2F	예식장 / 대연회실
2F	양식당 / 소연회실
1F	커피숍 / 비즈니스센터
1F	테일러샵 / 중연회실
1F	프론트로비
B1	황하룸싸롱
B2	사또 가라오케



	객실정상기	사우나50% 포함패키지
Standard	120,000	82,000
Suite	160,000	102,000

 **釜山觀光호텔**
BUSAN TOURIST HOTEL

www.pusanhotel.co.kr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2가 12번지
 객실, 웨딩, 각종연회 예약 및 문의 : (051)241-4301~9 Fax, (051)244-1153